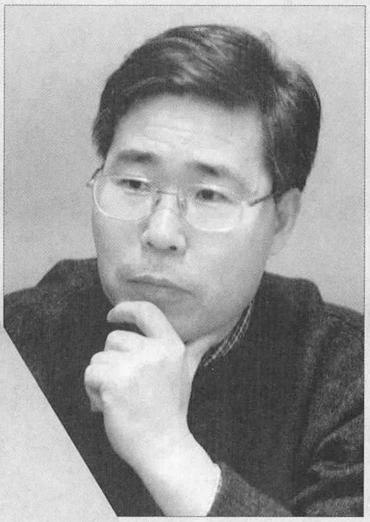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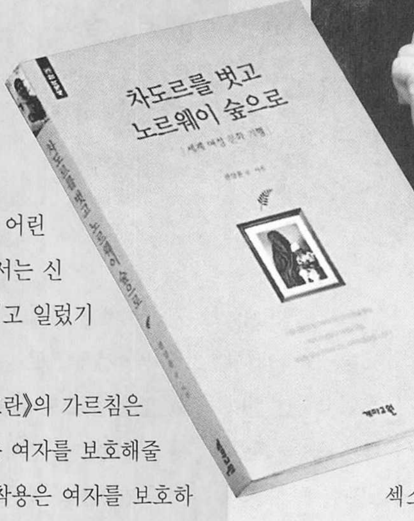
한 문명비평가의 눈에 비친 세계 여성의 풍속사

《차도르를 벗고 노르웨이 숲으로》 펴낸 권삼윤씨

권삼윤씨의 《차도르를 벗고 노르웨이 숲으로》는 이슬람 문화권에서 북유럽의노르웨이까지 세계 여성의 이모저모를 살폈다. 권씨는 지역 문화의 특수성이인간과 여성의 삶을 다양하게 변주시켰다고 설명한다. 여성에 대한 억압의 상징인 이슬람의 차도르든, 북유럽의 '프리섹스 문화'든 각각 주어진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노력의 결과물이라는 것이다.





권삼윤씨

개마고원/A5신/280면/9000원

권삼윤씨(50, 문화비평가)는 1981년부터 세계 각국을 여행했다. 그의 발길이 닿은 나라만 해도 60여개국이 훌쩍 넘는다. 서울올림픽대회조직위원회에서 국제협력업무와 의전 업무를 담당했던 그에게는 세계 이곳 저곳을 다닐 명분이 충분히 있었던 셈이다. 여행을 다닐 때마다 그의 눈은 각국의 문화유산과 삶의 방식을 살폈고, 그의 손은 그의 눈이 본 것을 충실히 기록했다. 덕분에 그는 《두브로브니크는 그날도 눈부셨다》(효형출판), 《태어나는 문명》(조선일보사) 등의 역사기행서를 낼 수 있었고, 문명비평가와 역사여행가라는 명함도 새기게 됐다.

가부장적 사회구조가 뿌리내린 유목민족

이런 약력을 자랑하는 권씨가 이번에는 《차도르를 벗고 노르웨이 숲으로》(개마고원)를 펴냈다. 제목과 '세계 여성 문화 기행'이라는 부제에서 눈치챌 수 있듯, 이 책은 성 차별이 가장 심한 이슬람 문화권에서 여성의 지위가 가장 높은 북유럽의 노르웨이까지 세계 여성의 이모저모를 살폈다.

책을 펼치면 검은 천을 온몸에 뒤집어 쓴 한 아프가니스탄 여인이 등장한다. '부르콰'라고 불리는 차도르를 착용하지 않고 외출했다가는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다. 그들은 왜 '차도르' 혹은 '헤잡'이라고 부르는 길다란 너울을 예외없이 두르고 다녀야 하는 것일까. 이유는 간단하다. 《코란》이 "남편, 아버지, 시아버지, 아들, 남편의 형제, 여자 종, 노비, 성적 욕망이 없는 남자 종, 여인의 내정을 모르는 어린 아이 이외의 사람들 앞에서는 신체 부위를 드러내지 말라"고 일렀기 때문이다.

"이슬람 문화권에서 《코란》의 가르침은 절대적이죠. 그들은 남자는 여자를 보호해줄 의무가 있으며 차도르의 착용은 여자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얼굴이나 목덜미 등을 내놓지 않으면 남자들이 성적 충동을 느끼지 않는다는 것이 그들의 말인데, 이것 역시 남성 중심적 문화 현상 가운데 하나죠."

하지만 《코란》에 그런 조항이 삽입된 이유는 사막이라는 특수한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고육지책이었다고 그는 설명한다. 사막이라는 척박한 풍토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남성 중심적이고 가부장적인 사회 구조가 적합하다는 것이다.

"이슬람 사회에서는 여성의 생산적 기능을 중요하게 생각치 않습니다. 여성의 노동력을 중시하는 농경문화권과는 달리 유목문화권에서는 여성의 노동력이 많이 필요치 않아요. 그만큼 여성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적고, 여성은 남성에 종속돼 있죠."

"본능은 교리보다 강하다"

하지만 변화와 개혁의 바람은 이슬람 여성들의 차도르를 힘껏 열어제치고 있다. 아름답고자 하는 여성의 본능은 차도르로도 가릴 수 없었다. 본능은 《코란》의 교리보다 강했던 것이다.

다시 권씨의 발걸음은 여성이 존중받는다는 북유럽의 노르웨이로 북상한다. '프리섹스의 본향'이라는 노르웨이에서 그는 성관계가 자유롭다 못해 문란할 것도 같았다는 선입견이 오해였음을 고백한다. 프리섹스란 난삽한 성관계가 아니라, 남자와 여자가 인간 대 인간으로 만나는 것이라고 그는 말한다.

"사회보장 제도가 잘 마련돼 있을수록 여성의 지위가 높습니다. 북유럽의 사회보장은 제도나 사회의 풍습에 따라 개인의 행동이 규정돼서는 안된다는, 다시 말해 삶의 내실화라는 지극히 개인적인 욕구에서 생겨났습니다."

이 책은 인간의 삶에 풍토와 물질적 조건 등이 영향을 끼치지만, 인간과 여성은 주어진 삶의 조건에 그저 수동적으로 대응해 온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일깨운다. 다시 말해 인간, 그리고 여성은 어떤 경우에도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그리고 이 점이 바로 여성학자도, 페미니스트도, 여성도 아닌 권씨가 이 책을 쓴 이유기도 하다.

— 최갑수 기자